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Jul. 31, 2022 (통권 906호)

오늘의 말씀
“바울의 소원”

[엡 3:1-4]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자주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저에게 매우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로 하여금 바울에게 더욱 매료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바울은…”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에서의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된 나 바울은(I, Paul,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for you Gentiles…”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보았으며, 로마의 철창이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완전히 헌신된 삶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보는 삶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허락하셨다면 분명 뭔가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반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특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의 본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때로 유대인 커뮤니티와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교회의 쇠퇴의 증거일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평화롭게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그 입장을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시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여러분을 좋아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문제는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세의 율법 준수와 별개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야고보는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라. 네가 이방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유전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들이 네가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물려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네 사람의 젊은이들의 서원을 마친 예식의 비용을 대고 함께 머리를 깎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대로 그들의 계획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들 때문에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는 바울의 표현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까지도 이방인들을 위해 섬겼던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로 인한 그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 은혜의 메시지로 인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감격과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과와의 신선한 교제를 통해 얻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주님과와의 교제의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늘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넘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세상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바울처럼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과와의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서신서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비밀의 주제를 다루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삶의 열정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과 나누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책에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새로운 계시들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너희가 읽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사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 높은 책꽂이에 잘 보관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책 속에서 말씀들이 막 살아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또 여러분을 공격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신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바울을 제 삶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매일 새롭게 주님과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지도록 그 받은 바 계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참을 수 없는 강박관념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생각할 만큼...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이 그렇게 미치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했던 비밀, 혹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어 봅시다. 이 비밀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비밀(mystery)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구약시대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간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간의 힌트는 있었습니다. 일테면...

[사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45:22]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아주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때에 신약 성경에서 신비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던 것을 이제 와서 알려지게 하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이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졌으며,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3: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을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벧전 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 모든 비밀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밀의 계시는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처음으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 다락에서 계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가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비로소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첫번째 문을 연 것은 베드로였지만, 이방 세계가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초청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밝혀진 비밀을 세 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그는 원했습니다.

그 첫째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롬 8:15-17]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그와 함께 다스리며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4:6-7]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두번째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갈 3:26-28]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여행에서 나눴듯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수많은 구분 조건이 있겠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생입니다.

[요일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딤후 3: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일 5:11-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